



## 유럽총연합회 2016 정기총회 7월 13~19일간 전자회의로 개최

2016년 고려대학교 교우회 유럽총연합회 정기총회가 회칙 규정에 의거 7월 13일-7월 19일간 전자우편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제4기 집행부가 작년 영국 런던총회에서 출범함에 따라 특별한 안건이 없기에 집합회의를 열지 않고 전자우편회의로 개최하기로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 앞서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열린 회장

단에서는 이번 정기총회 안건을 사전에 심도 있게 심의하여 2015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정기총회에 상정하였다.

또한 유럽총연합회 창립 이후 1기, 2기 3기 회장을 역임한 양해경(경영 66)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건과, 지난 런던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된 이상화(독문 82) 교우가 한국으로 귀입하

게 됨에 따라 후임으로 하나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법인장인 김혁준(독문 85) 교우를 선출할 것을 결의하고 정기총회에 상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국가교우회 분담금 조정과 임원진들의 회비 면제도 의결 정기총회에 상정하였다.

정기총회는 대의원 56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26명으로 상정 안건 모두가 통과되어 확정시키고 폐회되었다.

## 총 연 소 식



양해경 전 회장, 명예회장으로 추대

유럽총연합회는 양해경(경영 66)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양해경 전 회장의 명예회장의 추대는 6월 8일 개최된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되어, 2016년도 유럽총연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결정되었다.

양해경 명예회장은 2009년 유럽총연합회가 출범할 당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유럽총연합회의 기반을 튼튼하게 닦았으며 지속되는 교우들의 뜨거운 요청에 의해 2기, 3기 회장을 연임하며 총 6년 동안 유럽총연합회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김혁준 교우, 신임 감사로 선출

유럽총연합회는 2016년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감사로 하나 외환은행 독일법인장인 김혁준(독문 85)를 선출하였다.

지난 런던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된 이상화(독문 82) 교우가 한국으로 귀입하게 됨에 따라 후임 감사로 선출된 김혁준 교우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독일 외환은행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지난 1월부터 하나외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혁준 감사는 앞으로 임기동안 유럽총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김혁준(독일, 독문 85) 감사

### 독일

신임회장 선출 및 단합대회 개최

독일교우회는 4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인학(사학 80)교우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학번순으로 회장을 맡는 독일교우회의 전통에 따라 교우회장직을 맞게 된 조인학 교우는 40년 쌓아온 독일교우회의 빛난 전통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6월 16일에는 독일교우

회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60년대 학번인 김영조(기계 65), 양해경(경영 66) 대선배님으로부터 06 학번까지 교우들이 참석해 우의를 나누었다.

또한 이번 단합대회를 깜짝 후원해준 권혁준(독문 85) 교우, 재무총무를 기꺼이 맡아 준 변성운(경영 94) 교우 등 독일교우회의 단합과 우의가 잘 드러난 자리가 되었다.

또한 6월 28일에는 지난 3년간 재무총무로 수고한 박승현(농경제 96)교우의 환송회를

개최하였고, 7월 23일에는 골프모임인 호골모 모임을 여는 등 독일교우회는 올해에도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교우회 신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조인학(사학 80)
- 수석부회장: 김순근(무역 84)
- 부회장: 김혁준(독문 85)
- 홍승중(경제 85)
- 조운경(식공 86)
- 수석총무: 한동천(화학 88)
- 총무: 변성운(경영 94)
- 강인영(화학 06)



### 영국

지난 6개월간 많은 교우들의 이동이 있었는데, 김현식(경영84), 김갑수(행정84), 진기천(경영85), 정인규(법학92), 김광원(경제00) 교우가 한국으로 귀입하였고, 백재현(전기71), 배준영(경영86), 김경인(경영88) 교우가 영국교우회 일원이 되었다.

특히 백재현 교우는 영국교우회에서 활동하다 오랜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동한 후 이번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교우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영국교우회는 지난 4월과 6월에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골프모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올해에도 변함없는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 "조급한 연구 풍토에서 노벨상 기대할 수 없어" 50억 규모 KU-FRG 시행



고려대는 올해 8월부터 교원들의 미래지향적 융합연구 지원을 위해 교비 50억을 연구기금으로 배정하는 KU-FRG(Future Research Grant; 고려대학교 미래창의 연구사업)을 시행한다. 고려대에서 연구 실적 중심이 아닌 미래지향적 창의 연구에 연구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고려대의 연구장려금(grant) 제도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연구비 사용에도

최대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자율적 연구 진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교내연구비와는 크게 다르다. 이번 KU-FRG 사업은 기존의 업적 위주의 지식 재생산 중심의 논문 양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장려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교수들은 더 이상 기존 연구의 틀에서 반복적으로 연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 미지의 학문분야를 개척하는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을 통해 고려대는 3개 분야 △대형 국책과제 수주 준비를 위한 기획형 융합 연구 '집단연구'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신진연구자 '개인연구-신진' △차별성을 갖춘 창의·미래지향적인 연구 '개인연구-창의'를 지원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뉴턴 프로젝트(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다산 프로젝트(사회과학 분야), 르네상스 프로젝트(인문학 분야)로 세

분화하여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의 전통을 확립하고자 했다. 교수들에게는 292개 단순화된 제안서를 받아 내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고, 그 결과 135개 과제에 대한 201명(전체 전임교원의 약 12.5%)의 교원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 중 고려대 교수 23명으로 구성된 인문, 사회, 정책, 과학기술, 의료 등 다분야 융합연구인 『초제학적 감염병 국가위기 대응·관리 역량강화 사업 기획연구』가 눈에 띈다. 위험을 예측하고 진단키트를 만들고 위험성을 분석·평가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며 사전 진단·예방부터 사후 피해복구까지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연구팀은 감염병은 전통적 재난을 넘어 인간과 시스템에 의한 재난인 것에 착안하여 초학제간 융합과 집단적 지성을 활용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며 국제적 협력과 민관협력

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행정학과 최상욱 교수는 "한 학문을 연구하면 학문의 심화가 가능하지만 어떠한 주제에 대해 종합적인 해석, 진단, 처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동안 대학들은 학문간 영역에 집착해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번 KU-FRG는 범캠퍼스적 집단 지성 속에서 각 학문의 전문성도 심화되고 영역간 융합 또는 학문간 시너지 효과도 가능한 최초의 시범적 유형이라고 본다"며 "감염병이라는 주제를 떠나서 집단 연구의 모범이 되어 다른 연구들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성의 사회환원 역할을 강조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KU-FRG를 시행하며 "미래교육과 아울러 미래연구 영역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미래에 꼭 필요한 연구라면 대학이 아낌없이 투자하고자 한다. 조급한 연구 풍토에서는 노벨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의의를 밝혔다.

## KU 라틴아메리카 프로젝트는 순항 중 새로운 대륙 개척 위한 거침없는 행보

본교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KU 라틴아메리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 국내 대학 최초로 쿠바 명문 아바나대학과 전면적인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코스타리카, 멕시코의 각 대학, 기관들과도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염재호 총장은 중남미 각국을 돌며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30명의 본교 학부생들은 지난 7월 11일(월)부터 스페인어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지역 관련 특별 강연 수강 및 다채로운 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다양한 생물군을 보유하고 국토의 약 25%가 보호지역,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될 정도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 선두적인 국가로 이번 프로그램 내에도 생물 다양성 연구

소(INBio)와 연계하여 특별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현지 프로그램 교육비 및 숙박비용을 포함하여 왕복항공료까지 참가자들 모두에게 장학금이 지원된다.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염재호 총장은 7월 18일 오후 본 프로그램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특강을 통해 "이제는 영어권 외에 새로운 기회의 대륙 라틴아메리카의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각고의 노력으로 잘 살려 달라."고 당부했다. 특강 이후에는 코스타리카대학의 헤닝 켄센 페닝턴(Henning Jenssen-Pennington) 총장을 만나 본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또한 본교는 7월 25일 멕시코 시티를 시작으로 과달라하라(27일), 몬테레이(28일)에서 교육, 문화 포럼을 진행한다.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과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ESTUDIA EN COREA: TODO LO QUE NECESITAS SABER)"을 주제로 한국의 문화와 고등교육 시스템을 소개하고, 본교를 비롯한 한국대학이 지니는 경쟁력과 입학안내와 장학 혜택을 설명했다. 7월 25일 포럼을 진행한 나르다 산타나 양(고려대 경영대 재학중)은 라티나사람(Latina Saram)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문화를 중남미에 알려왔다. 그는 구독자수가 27만명에 육박하는 파워 유튜버다. 특히 25일 멕시코 국립 예술회관(INBA)에서 개최된 포럼에는 수용인원의 두배인 2000여명이 입장하지 못한 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설명회를 접



하기도 하는 등 본교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염재호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500명이 넘는 현지 청중들에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플랫폼인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7월 22일 총장은 멕시코 국립창업지원청(이하 INADEM: Instituto Nacional de Emprededor)의 엔리케 하콥 로차(Enrique Jacob Rocha) 청장을 만나 양 기관이 후원하는 지주회사의 기술 협력과 시장 개척을 위한 상호

지원과 창업 보육에 대한 협력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INADEM은 멕시코 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창업자를 지원하고 현지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 및 실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멕시코 국립과학기술위원회(이하 CONACYT)의 마리아 돌로레스 산체스 부위원장과 멕시코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부장학생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유재경 교수 (영문 79, 명예회원, 미얀마 대사)

저는 30년 기업인이었는데 국가의 부름으로 인생 2막을 미얀마에서 열게 됐다. 퇴사 후 지난 1년 책을 내고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삼성 이사 출신 수천 명 중 유일하게 대사로 임명됐다.

삼성전기 과장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 칠레 포함)에서 5년, 유럽판매 법인장으로 독일에 있었고, 본사로 돌아와 사업 부장과 글로벌 마케팅실장을 역임했다. 개발과 제조분야에서 30년 해외영업맨으로 살았다. 이제 대사로서 외교와 정부 부분은 공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제 경험을 십분 살릴 수 있는 무역이나 시장 개척 등에 힘쓰고 싶다.

영업맨으로 일하다 보니 항상 '을'의 입장이었고 목과 허리가 아주 부드럽다. 하지만 이제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각도가 문제가 될 것 같다. 너무 굽히면 국가가 허리를 굽히는 것이 되므로 처신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기업인으로서 외교관과는 기



네피도 지역 스쿨버스 기증 전달식

본적으로 스타일이 다르다고 보는데 긴장보다는 기대가 된다. 조직이 속성상 뚜껑이 바뀌는 등 흔들리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조직은 항상 변한다. 대사 임명 직후 그런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해 제가 쓴 책 '지구 100바퀴를 돌며 영업을 배웠다'를 대사관 직원들에 보냈다. 책을 읽은 후 저에 대한 이

유럽총연합회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교우들을 잇는 징검다리 가 되고 이들 교우간의 교류를 위하여 '교우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 교우 릴레이는 글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유럽총연합회 교우들 에게 소식을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 김인홍 교수, 영국 임시창 교수, 프랑스 신근수 교수, 러시아 이세훈 교수, 스웨덴 유명연 교수, 오스트리아 김신자 교수, 터키 김성렬 교수, 남아공 민경준 교수, 쿠웨이트 박정길 교수, 우남준 명예회원, 프랑스 서정호 교수, 독일 박돈희 교수, 네덜란드 김영원 교수, 프랑스 김재호 교수, 우크라이나 박승현 교수, 전독일교우 회장 오상덕 명예회원, 나이지리아 정병훈 교수, 모교 교수 김세원 교수, 헝가리교우회장 이상일 교수, 정재근 명예회원, 페루 교우회장 김태원 교수, 사우디아라비아 백재현 교수, 카자흐스탄교우회장 김상욱 교수, 우즈베키스탄 남준성 교수, 벨기에 유승철 교수, 스페인 권석주 교수, 스웨덴 형민우 교수, 민석기 명예회원, 영국 한충석교수, 김종훈 명예회원, 프랑스교우회장 지영섭 교수, 스웨덴교우회장 석갑인 교수, 독일 튜빙겐대학 한국학과 교수 한운석 교수, 폴란드 남종식 교수, 김용학 명예회원, 스페인 이기욱 교수, 오스트리아 이은영 교수, 양원목 명예회원, 독일교우회 OB들의 모임인 독호회 회장 이상목 교수,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를 역임하고 현 필리핀 대사인 김재신(정외 75)교수, 네덜란드 김종식 교수에 이어 미얀마 대사인 유재경(영문 79) 명예회원이 바톤을 이어 받았다.

# 교우 릴레이(42)

## 미얀마, 제2의 인생

해를 돕고 회의나 대화를 진행 하면 다 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대사가 전문외교관이 아니어서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같은 과(科)다. 그래서 통(通)한다고 본다.

### 예전 브라질 같은 미얀마

브라질은 금요일 밤이면 소음 그 자체다. 독일에서 그렇게 소리를 내면 경찰이 달려온다. 일단 미얀마는 브라질 스러워서 좋다. 거리를 다닐 때면 여기가 브라질과 비슷해서 '와서 많이 본 것 같다'는 데자뷰(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는 대량주문이 오는데 반해 미얀마의 70%는 소량주문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갈 수 없고 생산라인(Line)을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의식구조다. 여기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려는 게 아니고 또 잘하자 하는 마인드도 아니다. 남들이 더 주면 더 받기를 원할 뿐이다. 해외지역에서 사업 환경 쉬운 곳이 없다고 본다. 모든 비즈니스 환경의 최우선 순위는 사람이다. 저는 거래선을 볼 때 그 사장을 보고 그 사람이 괜찮으면 거래를 트고 사업을 시작한다.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업체와 교포 사업장을 돌며 애로사항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시장을 분석하는 3요소가 시장 규모, 시장 경쟁 정도, 핵심 역량이 가능한가로 정리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식품시장은 답이 안 나온다. 소금공장에서 1비스(viss, 1viss=1.6kg)에 100짖에 가져와 가공한 후 175짖에 판다. 연간 60만불 수익을 대부분 화교들이 주도한다. 설비도 열악한데, 50~100만불 이익이 생긴다.

시장조사나 촬영 등에 아무 제재도 안 하는 것은 외국사람이 들어와도 이 시장만은 자신 있다는 표시 아닌가. 또 자기들 아니면 구매 못 한다는 그들의 네트워크도 엄청나고, 미얀마 신시장 개척, 정말 힘들다.

뗏목마용 주한 미얀마대사와 면담도 그랬고 네피도에서 만난 고위 관료들도 제가 대기업 출신이라 대기업을 유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넌센스다.

대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이 안 빠르다. 인프라나 전력, 그리고 시장조사를 다 하는데 수년 걸린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기업이 더 나은 환경이라고 본다. 중소기업들이 미얀마에서 기업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다는 게 증명되면 그 다음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는 우리 교우들의 진출과 활동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 녹색치 않은 미얀마의 상황,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

대표적으로 세관이 일관성이 없고 변화무쌍하다. 컨테이너가 1주일이면 될 것을 3~4주 그냥 두게 만든다. 그러면 비용이 다섯배, 열배로 늘어난다. 신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

해 더 많이 도랑치고 가재 잡는 꼴이다. 세관조직의 수장과 넘버 2가 자주 바뀌는 것도 어려움을 준다.

세관이 현재 알리바바를 통해 기준가를 잡는다. 그래서 점점 더 관세가 올라간다. 어떤 품목은 2~3배 댄 것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이 어려워진다.

또한 장점으로 보이는 저임금도 또 다른 문제점이다.

장점인 저임금은 달리 말하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캐디인데 한국의 1명을 미얀마 4명이 못 따라오는 상황과 유사하다. 노동시장이 생각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해 외국기업에서 안 들어오는 것이다.

또한 노동문제는 너무 앞서간다. 노동법은 완전 선진화다.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일주일 40시간을 일하니까 말이다.

여기 로깅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어떻게 공정경쟁을 할 수 있겠나? 외국인에게 법인세 5년 면제 등을 준다지만 실질적인 매력은 없다. '외국인 투자법'을 조사해보면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듯 미얀마의 상황은 장미빛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5600만명의 인구, 풍부한 천연 자원은 미얀마가 기회의 땅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때 전 세계 티크의 75%를 생산했으며 문자 해독률도 높다. 광업은 석유·주석·텅스텐 등의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고대 정신으로 제 2의 인생 미얀마 대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자랑스러운 교우로 미얀마를 떠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얀마태권도협회장배 태권도 챔피언십 대회

# 교우논단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후 영국 정치·경제 전망

### - 윤참술(자원경제 03 영국 교우회)



#### 영국 정치

#### 1) EU 탈퇴 논의 시점(언제 Article 50이 발동될 것인가?)

David Cameron은 그의 사임사에서 "EU와의 협상 및 Article 50의 발동은 새로운 수상 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수당은 Conservative party conference가 있는 올 10월2일부터 5일까지 새로운 수상을 선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메이이 신임 총리로 취임함에 따라 최소 3개월동안은 공식적인 exit process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공식 접촉을 늘려가고 있지만 정식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 Article 50이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 (Brexit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현재 30%의 확률로 Brexite lite, 즉 EU가 이민자문제와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supremacy문제를 공식적인 Brexit없이 협상해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 문제는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큰 정당들의 정치적 agenda 인만

큼 공감대를 끌어내기 (비교적) 쉬운 사안으로 판단되며, EU에서 협상을 해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2nd Referendum?

같은 어젠다에 대해서 (1년 안에) 두번의 국민투표를 한 선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일랜드의 Nice treaty, 네덜란드의 Maastricht Treaty) 스코트랜드 독립과 Brexit 둘다 2차 국민 투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 i) Scottish referendum

스코트랜드는 Remain vote가 62%였던것으로 가늠해볼 때 Scottish first minister가 스코트랜드 독립(또는 EU 잔류)을 기치로 건 두번째 국민투표를 (Scottish National Party가 minority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제의하고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사료됩니다.

#### ii) Brexit

2020년전에 영국 총선이 치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보이지만 아예 배제할수 없습니다. (전체 의원의 2/3이 early general election을 prompt해야함)

이른 총선은 제 소견으로는 보수당이 10월 전당대회(?, conservative party con-

ference)때에 둘로 갈라지는 이벤트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른 총선이 현실화되고 EU remain을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Brexit 재투표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likely한 경우의 수가 될것입니다.

#### 유럽정치

포퓰리즘에 영합하려는 유럽 각국의 정당들이 referendum을 선거용 정책으로 내세울 것은 자명해보입니다. (이미 네덜란드의 Dutch Freedom Party의 Geert Wilders는 공식적으로 EU 국민투표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총선이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채로 끝난 상황에서 (영국의 Brexit 결정이 스페인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수 없지만) 특히 유럽 정치 역학의 불확실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다만 선거 결과가 국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낮게 보이는데 이는 선거의 쟁점은 국제적 이슈보다는 국내 정치 이슈가 더 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영국 역시 회상해보면 총선에서 EU referendum이 차지했던 부

분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 니다).

#### 환율 및 경제

#### 1) 영국 성장률

16년 0.8% 감소 (1.8%에서 1%로) 17년 1% 감소 (2.3%에서 1.3%로). 추정치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영국 노동 시장의 5%가 새로운 비자법하에서 qualify 하지 못할것으로 전망-고용 성장의 1%정도가 다른 EU시장에서 건너온 노동력인것으로 추정

ii) EU가 탈퇴 확산을 막기위해 영국을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커보임-tough trade negotiation가능성

iii) 4.5%의 영국 GDP가 타 유럽국가들로의 서비스 수출.

iv) 영국 FDI의 반 (4.5%의 GDP)이 유럽에서 들어오는 자본. Capital outflow가 떨어지는 환율과 함께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면 환율하락과 함께 GDP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음.

#### 2) 자본 유출과 환율

usual suspects인 스위스 프랑과 엔의 가치 상승 (or 폭등)에서 볼수 있듯이 파운드에서 safe heavens로의 자본 이동은 이미 시작된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반된 파운드 가치의 폭락은 모두가 예측 했던 일이나, 그 정도가 어느정도일지에 따라 Bank of England의 reaction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환율 하락에 의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은 피할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전망 1.6%에서 2.1%

로 0.5% 상승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2%대에서 머무른다면 BoE도 기준금리를 현재 0.5%에서 0.05%대로 (45bp 감소) 낮출 여력이 있어보입니다만, 만약 환율 폭락이 생각보다 심하다면 (글쓰는 현재 환율은 1.326 GBP/USD로서 생각보다 많이 심해보입니다만) BoE도 금리를 인하 시키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마도 환율이 1.25를 찍는다면 오히려 통화 수축정책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바꿀 가능성도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 3) 유럽경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Brexit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은 오히려 영국보다 유럽에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영국은 일단 Brexit 결정으로 인해 (비록 안좋은 방향이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반면 (위에서 다룬것처럼) 유럽의 정치 turmoil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전망은 EU의 GDP 성장률이 16년 0.2% 감소 (1.7%에서 1.5%로), 17년 1%감소 (2%에서 1%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CB의 통화정책은 줄곧 credit supply에 맞춰져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리고 이미 TLTRO II에서 -0.4% 금리를 실질적으로 도입한 점을 미루어 볼때) 아마도 금리 인하보다는 일반 회사채를 사들이는 금액 (현재 국채/회사채 합쳐서 매달 EUR80bn)을 더욱 늘리거나 일반 시중 은행들이 ECB에서 4년동안 -0.4%에 빌릴수 있는 금액 (aka TLTRO II)을 상향해주는 방향 (현재 빌릴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일반 기업에 빌려준 대출의 양이 결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담보 대출 역시 포함시켜줌으로서) 으로 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참조: 다가오는 유럽 선거**

- 2016년 10월: 리투아니아 총선
- 2016년 10월: 이탈리아 헌법국민투표
- 2016년 11월: 프랑스 공화당 경선
- 2017년 1월: 프랑스 민주당 경선
- 2017년 3월: 네덜란드 총선
- 2017년 4월: 프랑스 대선
- 2017년 8~10월: 독일 연방 선거